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발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naum

경계 물들지 않고 살아야 참다운 삶

13면에서 계속

또 주인공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체를 놓고 관하는 가운데 생수 맛을 보게 되는 것이지 주인공을 대상으로 놓고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대라. 네 근 본자리로 파고 들어라. 그러기 위해 주인공을 세워 놓고 그리고 물어부처라는 말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나'와 '주인공'은 어떤 관계

이번에 드릴 질문은, 현대불교신문의 '길을 묻는 이에게'를 보다가 생각난 것인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인공이 그렇게 시켜서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자체가 그대로 주인공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자체 바로 그것이 그대로 주인공인 것입니까? 전부다 생각하여 왔던 것이지만 아리송한 가운데 있다가 이제야 질문드립니다.

나 이외에 주인공이 내 속에 따로 있거나 혹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시켜서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인공' 할 때에 '빈 공(空)'자를 썼고 주인공도 이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인공' 할 때는 수억겁을 거쳐 나를 형성시켰고 끌고 온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주인공, 네 주인공 하는 식으로 갈라서 말하는 것도 넘어섭니다. 그래서 삼천大千세계 일체만물을 한마음 주인공이라 하고 싸잡아 불러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름없는 이름이여!' 하는 겁니다. 부처도 '부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일체이요 일체가 만물이요.

내가 공부하는 분들에게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서 놓고 관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공테이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수억겁을 거쳐 인간으로 진화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입력되었습니까? 그것이 현실의 경계에서 찰나찰나에 수도 없이 술술 흘러나오는데 그걸 일일이 이렇다 저렇다 한다면 그걸 이루다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쪽쪽 그자리에 되놓고 '주인공 알아서 해' 하는 마음으로 '나'라는 생각부터 썩 빠져버려야 수없이 입력된 것들이 자위저 공테이프가 꽤도 될 게 아닙니까?

자꾸만 머리로 헤아리지 마시고 그냥 몽땅 놓고 가세요. 그렇게 머리로 헤아려

산을 오르는데
중간에
경치 좋은 곳
힘든 곳
다 만나는데
거기 붙잡히면
언제 다 오를까

서 알 거라면 구태여 내가 이런 말 하지도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출가했어요

스님 저는 현재 대학교 3학년 재학생인 학생입니다.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받아 들여지지 않는 일이 제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스님께 여쭙는다는 게 우습긴 하지만 제가 처음 사랑이란 것을 느낀 한 범우님께서 얼마 전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범우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놓고 관해 보셨는지요? 사람들은 흔히 좋은 경계에선 놓는 공부가 잘된다고 하다가도 싫은 경계가 닥치면 놓아지질 않는데다 안절부절 합니다.

그게 다 자기사랑때문이지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끔찍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싫은 경계가 닥치면 애착이나 번뇌로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마음공부하는데 무엇이 병이라 했습니까? '나' '내 것'이 '나'하는 그 이상 어떤 큰 병이라 했지요.

그래서 싫은 경계, 역경계에서 공부가 더 잘되고 좋은 경계, 순경계에선 공부하기가 오히려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공부는 내가 죽어 나를 보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길은 놓고 말고 관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부모님께 혼나지 않는 방법

저희는 안양본원 어린이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박도영, 박창영, 박우영입니다.

어느날 아빠를 따라 심성과학원에 갔다가 청아스님과 이력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청아스님께서 '너희 엄마, 아빠가 무섭니?' 하고 물길래, 저희들이 '엄마, 아빠한테 가끔씩 혼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무섭다'고 말씀드리자 '그러면 너희들이 혼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방법만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그 질문의 답을 찾았다고 주인공한테 물어 보았는데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빠한테 여쭙어 보았더니 '나도 잘 모르겠으니 큰스님께 여쭙어 보자'고 해서 아빠의 컴퓨터를 통해서 큰스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제발 그 답을 가르쳐 주세요.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법
찰나찰나 나오는대로 되놓고
'나'라는 생각·사랑분별 썩 빼세요"**

저 푸르른 나무의 잎새들은 무얼 믿고 사나요? 뿌리의 힘을 믿기에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않고 싱그럽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아빠에게 혼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래요. '주인공 아빠에게 혼나지 않게 하는 것도 너 밖에 없잖아!' 하고 저 잎새가 뿌리를 믿듯이 그렇게 하세요. 아빠에게 혼이 나는 것도 주인공이 너희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혼이 나지 않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다고 괴를 내거나 조르지 말고 '주인공이 꼭 가르쳐 줄게야!' 하고 믿어보세요. 가르쳐 줄 겁니다.

나중에 더 크면 또 알아지는 게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보세요. 어린이회에 열심히 나가서 스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잘 따라하시구요.

성욕에 걸리는 때가 많습니다

파란 하늘이 유난히도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시대발전에 따라 이렇게 컴퓨터통신으

로 친견을 하게 된 이 시대에 감사하며 더욱 좋은 환경을 벗아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저로서는 성(성욕)에 걸리는 때가 많습니다.

성욕은 인간 생활의 걸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일 것인데 제가 주인공에게 아직 전적으로 일임하지 못하여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이해가 커질 때 더욱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마을에 마을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성(性)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 어떻게 잘 성(성욕)을 이용해야 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일체를 놓고 살란다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게 목석이지 사람이겠습니까? 배고프면 밥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잠을 자야 하듯이 그렇게 엄매이지 말고 여려한 도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그게 참다운 삶이

요 대장부다운 삶이지요.

내가 마음공부를 하라고 권하는 것은 경계에 그달리는 노예같은 삶이 아니라 경계에 물들지 않는 자유인이 되는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문제 또한 주인공에 맡겨 놓고 관하면서 편안하게 대하세요. 공연히 뭐는 나쁜 일이다 하고 규정짓지 마시고요. 생활 속에 도가 있지 따로 길을 내야 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관하는 도리를 배워서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처갓집 제사도 모시고 싶은데...

저는 4형제 중 셋째이며 제 처는 2녀 중 장녀입니다.

장인어른은 2남5녀 중 장남으로 아들을 두지 못해 부모님의 제사를 직접 모시지 못함을 서운해 합니다.

지금 제사를 둘째인 작은 아버지(아들2명을 들)께서 모시고 있는데 제가 결혼 당시에도 그런 상황을 알고 아들 노릇도 해야겠구나 마음을 먹었지만 장인어른은 마냥 허전하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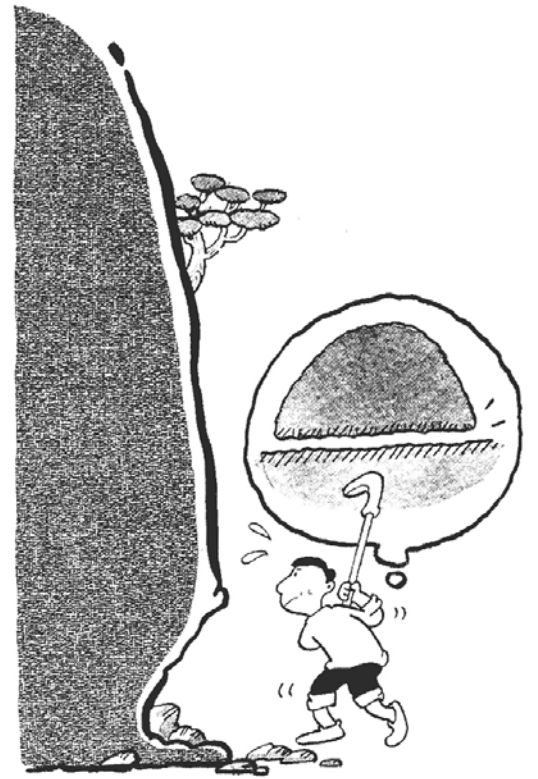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제가 처가의 조부모님을 영달 공원에 모실 수 있는지도, 훗날 장인, 장모님도 모실 수 있는지도, 만약 그러는 경우 영가(전주 김씨, 전주 이씨(처가))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지요.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해골을 보셨는데 그 해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덤에 절을 하셨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지요?

그때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의아해 하는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느 때 내 부모였을 수도 있고 내 형제 자매였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수억겁 세월을 두고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때로는 부모 자식이 되었다가 때로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그렇게 되풀이했을 겁니다.

그러니 네부도 내부도, 네자식 내자식이라고 한정할 게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또 그럴 테니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들고 도는 이치 속에서 돌 아닌 도리를 가르치시려고 해골무덤에 절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장인 장모라 해서 내부와 다르다 하겠습니까?

법 전 한마음

현대불교신문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

기도의 영험이

적멸보궁의 방광(放光)으로 현현하는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

1983년 9월 21일, 동생과 철야기도를 하기 위해 법흥사 적멸보궁에 갔다. 암선고를 받고 부산에서 왔다는 보살님 내외와 철야기도를 하다가 새벽 2시 45분쯤, 세수도 하고 다기물도 갈기 위해 보살님 내외와 보궁 뜰로 나왔을 때였다. 보름이 지난 지 한참이라 캄캄하던 사방이 순식간에 환한 빛으로 밝혀졌다. 번개가 질 때처럼 밝은 빛이 한동안 사자산 언화봉 쪽에서 비추는 것이었다. 암선고를 받고 기도중이라는 보살님은 적멸보궁의 부처님 방광을 목격하고 기도의 가피로 건강해졌다고 했다. 나는 그 이후 불자로서 이웃과 더불어 보살행을 닦으며 살고 있다. - 제전에서 권 대도행 -

부처님을 참배하기 위해 법흥사 적멸보궁에 간 것이 1978년 4월 21일이었습니다. 함께 간 일행 9명 중에 적멸보궁에서 기도를 하던 7명이 적멸보궁 위 언화봉에 비추는 방광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색 영동한 빛이 오렌지색 또는 황금색으로 보이기도 하였고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었는데 밝은 광채 때문인지 나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30분경이었는데 약 1시간 반 동안 기도중이던 우리 일행을 비추었습니다. 이때의 방광은 우리 일행 외에도 인근 마을에 불명이 있어 나갔던 이진수 씨가 보았는데, 절에 불이 난 줄 알고 급히 달려와 보니 묘사재는 환한 광채에 뒤덮여 있고 묘사재 보살은 길히 잠들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놀라움과 경이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 부산에서 박상준 -

대한불교 조계종 법흥사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1 전화 (0373) 374-9177 팩스 (0373) 374-9178

• 천일 기도 기간 내내 기도 동참 및 10만등 불사 점수를 받습니다. 직접 또는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

중흥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천일기도 및 10만등 불사



우리 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이자 신라 구산선문 가운데 사자산문의 개산 도량이었던 법흥사가 기울어가는 국운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원력을 모아 중흥 불사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번의 중흥 불사로 거듭나게 될 법흥사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희망의 도량이 될 것입니다.

1998년 11월 8일(음 9월 20일) 입재 2001년 9월 20일(음) 회향

법흥사의 중흥불사는 온 국민의 동참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나라의 흥흥과 백성의 편안함을 도모하는 창경정신에 투철할 것이며
참배와 기도를 위한 불자들에게는 내집처럼 편안한 정신적 귀의처가 될 것이며
21세기의 인류를 위해서는 선불교 중흥도량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